

일상을 향해 인권을 날리다

종이비행기 5호

2016년 9월 | by 루치 본도 선우 신원 임다희 준 필부 디자인 이세린 교정도를 최자연

노원아, 놀자며? 운동하자며?



주민들의 건강에도 관심이 많은 노원구.
하지만 청소년 주민들의
실제 스포츠 문화 여건은 어떨까?
>> p.6

학벌 복플렉스



성적 하나로 삶의 위치와 풍경이 달라진다.
학벌이 사람의 가치를 재는 척도가 될 것이다.
>> p.6

학교의 위법행위 수도 없어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지도 벌써 4년.
학교에선 학생들의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 p.4

당신은 방학을 빼앗겨 왔다.



방학은 언젠가부터 거의 반 토막 나 있다.
방학이 어쩌다가 이렇게 짧아진 걸까?
>> p.4

지역 소식



‘용화여고양이’ 복남이, 무지개다리를 건너다

2013년 즈음에 용화여고에 나타나 자연스럽게 용화여고에 정착해 살게 된 길고양이가 있다. 사람들은 그 고양이에게 복남이(또는 꽃비, 예이미 등)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복남이는 급식실 출구 근처 은실 앞에 누워 애교를 부리거나, 여지할 때 복도에 나타나서 학생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곤 했다. 그 다음 해 말, 그 귀여운 모습을 공유하기 위해서 ‘용화여고양이 복남이’ 페이지가 만들어졌다. 풍습에 있는 복남이, 니업을 받는 복남이, 나무 위에 올라간 복남이, 학교에 들어온 복남이 등 여러 모습이 페이지에 담겼다. 길고양이인 만큼 항상 쟁거를 수 있는 사권은 없어 힘든 날도 많았지만, 복남이는 계속 학교에 남아 유희여고 학생들과 함께했다.

하지만 2016년 6월 21일, 임시실명학에 방문한 학부모 차입에서 잡고 있던 복남이는 마치 치 소리를 듣지 못했다. 차에 치이고 말았다. 부고 소식을 알린 페이지 게시글에는 수백명의 학생들이 추모 댓글을 달며 슬픔을 공유하고 복남이의 영복을 빌었다. 실경 용화여고 학생은 아니더라도, 복남이가 용화여고양이로서 함께했던 시간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 필두

▲ 복남이의 생전 모습. 복남이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 페이지에 제보를 하고 있다.



노원청소년인권신문 <종이비행기> 제작단 출범하다

2016년 7월 16일 '노원청소년인권신문 <종이비행기> 제작단(이하 제작단)'이 출범하였다. 제작단은 올해 노원구 청소년에 관련한 다양한 기사들로 <종이비행기> 5호를 제작한다. 제작된 신문은 10월 초부터 배포할 예정이다. <종이비행기>는 2013년부터 노원지역 청소년인권옹호아리 되어(이하 아리)에서 발행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작단에서 <종이비행기>를 발행할 예정이다. 제작단은 올해 아리에서 주최한 '청소년인권기자학교 in 노원'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결성되었다.

아리에서는 제작단을 통해 이전 호보다 더 다양한 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이비행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래 링크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선우

<종이비행기> 제작단 페이스북 페이지 : <https://www.facebook.com/nowan.paperplane>
노원지역 청소년인권옹호아리 페이지 : <http://cafe.naver.com/hwya>

▲ 노원청소년인권신문 <종이비행기> 제작단 출범 기념 사진

올해, 노원구에서 청소년 관련 다양한 사업들이 펼쳐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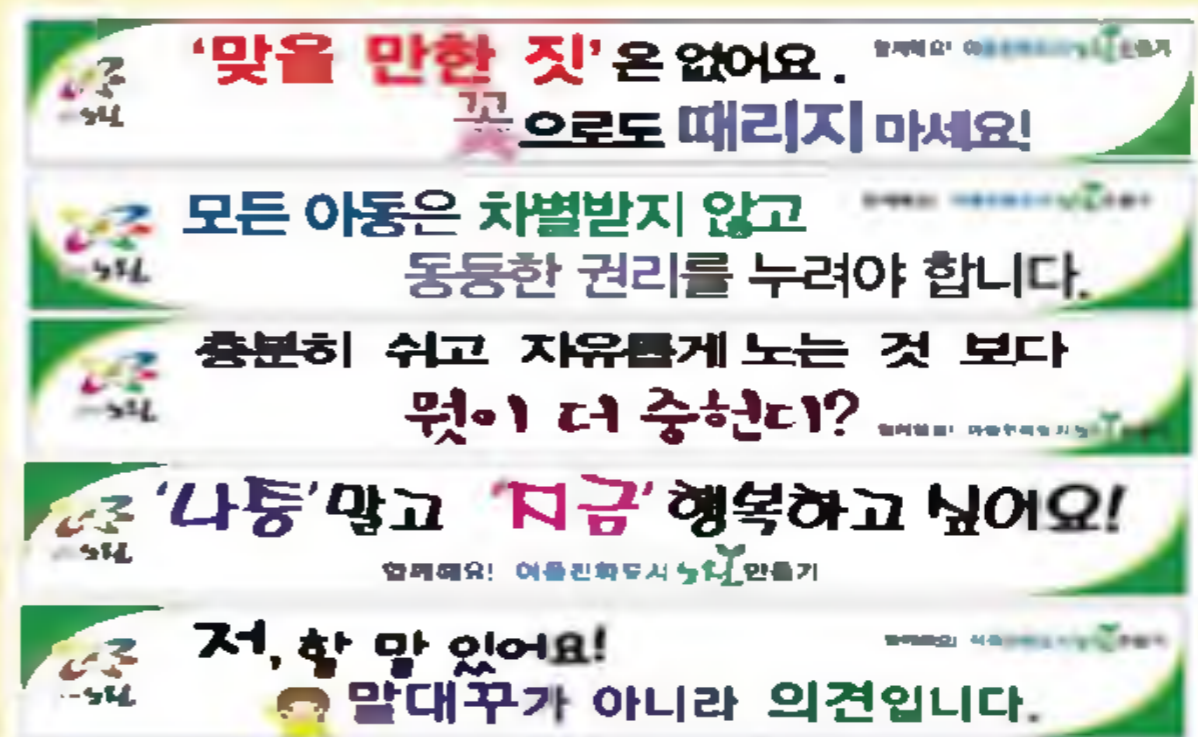
노원구는 그동안 국·지방 교육 특구,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등으로 지정되었다. 지금껏 노원구가 진행해온 사업들을 미뤄왔을 때도 이등에 더해 많은 관심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정작 노원구에 살고 있는 어린이/청소년 주민들은 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청소년조차 알기 힘든 청소년 사업들을 여기서 한번 알아보자.

노원구, 이동친화도시 만들기 사업 시행 중
노원구기 유니세프(UN 산하기구)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만들기 사업을 진행 중이다. 작년 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엔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부모, 아동 관련 종사자 등 약 7,400명을 대상으로 지역 아동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부모 대상 아동권리교육과 인증심사 캠페인 [동네별네 입소문 프로젝트]와 아동영양행사를 진행 예정이다.

노원에 사는 학생 B 씨(만 15세)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노원엔 '은행사거리'란 이름의 임시경쟁 감독이 있는데 아동친화도시가 된다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심지어 당사자인 나는 이 사업에 대해 전혀 들어본 바가 없다"고 의견을 전했다.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함께 꾸는 꿈 - 아송송프로젝트'
노원지역에서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노원구청 노원혁신교육센터에서 진행한 이번 사업은 공방/하계/실기/문예/미술 등 구역별로 나누어 동아리활동을 지원한다. 총 106개 동아리가 서류지원을 했고, 최종 67개의 동아리가 선정되었다. 각 동아리당 멘토가 지정되며, 동아리 한 곳당 최대 80만 원이 지원되었다.

이번 사업에 신청한 동아리 대표자 C 씨(만 16세)는 "어전에 동아리 지원 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다. 동아리 지원 자체는 좋은 것 같다."고 말했고, 다른 동아리도 참여하고 있는 D 씨(만 16세)는 "처음에는 (지원이) 적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활동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노원교육복지재단, 청소년/청년에게 취업준비지원금 200만 원 지원해
노원구기 노원교육복지재단을 통해, 만 16세 이상 2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과 청소년 50명을 선발해 1인당 총 200만 원의 '취업준비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는 학교를 졸업하거나 자퇴를 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소년까지 서비스를 확대했다는 점이 차별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노원교육복지재단은 6월 25일에 선발된 지원자들에게 1차 지원금 100만 원을 전달했고, 10월 25일에 2차 지원금 나머지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신원

지역 소식

노원 사는 주민들 이야기 - 노원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주민 인터뷰 -

노원구는 주민들의 문화 활동이 활발하기로 유명한데, '청소년 주민'의 활동도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유독 소식을 접하거나,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다. 이번 기사에선 노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주민들을 만나, 각자 활동해오면서 생각하고 느낀 것들을 정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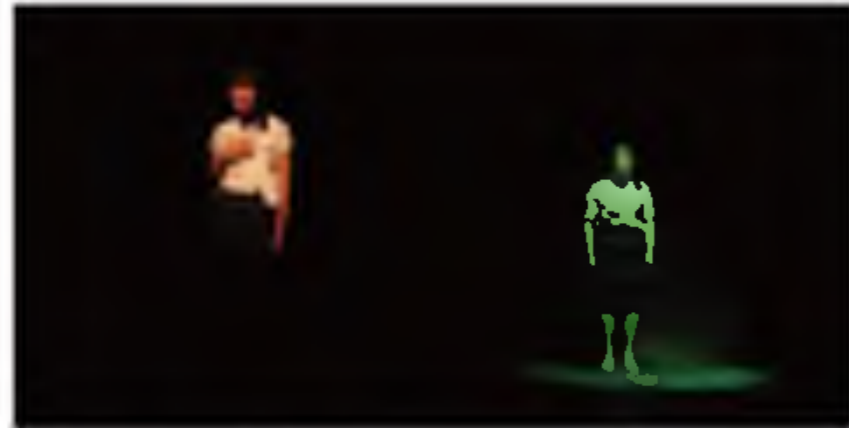
청소년창작집단 나인·오기훈 / 엄선정

'청소년 집단 나인'(이하 나인)은 노원 시민단체 '함께노원'의 부설기관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연극 기획, 극본 제작, 연기에 참여하는 극단이다. 마침 인터뷰 당일엔 나인에서 '오기훈'이라는 새로운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날이었다. 한창 베틀던 시간을 틈타, 나인의 단장 오기훈(이하 기준) 씨와 부단장 엄선정(이하 선정) 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분은 어떻게 나인에 들어오게 되었나요?

기준 저는 원래 영화감독이 꿈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영화도 많이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영화감독 하려면 입시 때 수학이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수학 되게 못했거든요.(웃음) 저한테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포기했죠. 그래도 영화는 너무 좋으니깐 무준하 봤는데, 배우들이 연기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아서 연극기부터 연기가 하고 싶어졌어요. 일단 무작정 연기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요. 학교, 학원 반복해서 재미도 없었고요. 근처에 연기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봤는데, 어머님이 나인을 알려주셔서 들어오게 됐죠.

선정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재능기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연기놀이를 하는 거였는데,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계속 연기가 하고 싶어서 무대에 설 수 있는 극단을 찾아다녔죠. 그러다가 만난 게 나인이었고, 여기서 실어서 바로 들어왔어요.



▲ 나인의 연극 '오기훈'의 한 장면

나인 활동 한다고 하면, 주변 시선은 어때요?

기준 친구들은 응원해주고 좋아하긴 하는데, 잘 안 믿는 눈치예요. 신기한 눈으로 보죠. 아무래도 연극이나 연기가 연극계 학생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져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선정 보통 극단 소속으로 연기한다고 얘기하면 "너가?" 이래요. 어른들은 경계해주시는 분도 있고, 낯까지 없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둘 중 하나도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부 포기하는 거야? 그래도 공부하는 게 어지. 노는 거 아니지?" 그러세요. 무대 중에도 가끔 그러는 친구들이 있는데, 무리한테 들으면 시금피디라고요.

활동을 하면서 즐거운 일도 많겠지만, 힘든 일도 있을 텐데요.

수도 어떤 일이 힘든가요?

선정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도 이런 활동에 사람들의 관심이 적다는 게 가장 스트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면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연기 연습을 할 장소나 돈도 없고요. 기본적인 연습 공간이 없어서 연습실에서 갑자기 뿔겨나기도 하고, 여전이 어려워요. 그래서인지 어떻게 관심을 가질다가도, 잠깐 보면 딴집다가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계속 활동을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선정 그, 무대를 비추는 조명 입장이고, 조명의 온기라는 게 있거든요. 무대에서 저한테 주명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조명의 온기가 느껴져요. 그러면 눈이 뒤집히면서 신내림 받는 것처럼 캐디터가 내 안에 들어와요.(웃음)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캐디터를 쫓아내고 연극이 끝난 뒤엔 막이 내리잖아요. 그 거를 볼 때, 배후한테 감정이 격하게 밀려와요. 그런 정말 무대에서 본 사람만이 알아요. 여태껏 내가 겪은 것들이 모두 인정받는 기분이에요. 사실 어 감정에 중독해서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현재 노원구에 사는 청소년의 삶은 어떤 것 같아요?

기준 많은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학원에서 보내지만, 사실 공부에 흥미가 없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원하지 않는 곳에서, 스트레스 받을 걸 생각하면 힘들 것 같아요. 학생 때도 그렇고, 사실 대학생이 되어도 똑같아요.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것이 좋을 텐데, 여유 없어 공부만 해야 하는 현실에 의미는 게 막막하네요.

선정 지도 마찬가지로요. 내가 뭘 해야 할지, 뭘 원하는지 모르고 무작정 일시 공부만 해야 하는 학생들이 제일 안타깝죠. 이전에 나인에서 했던 '피노키오'라는 연극이 있어요. 일어의 강요 때문에 학원만 열군데 이상 다니는, 자기 삶이 없는 아이에 대한 얘기였어요.

가장 큰 문제는, 청소년이 여유가 없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제 친구들도 일요일까지 학원이 가니까, 이번 연극은 보러 오지도 못해요. 요즘 경쟁이 너무 뛰니. 특히나 청소년이 하고 싶은 일대려 시현이 너무나 부족한 게 현실이잖아요. 이 사회가 우리에게 너무 한 가지 길만 강요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인 활동을 통해 이루고 싶은 게 있으신지?

기준 무대에 직접 시본다는 거, 연극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흔치 않은 경험 이거든요. 경험을 쌓으면서 제 연기가 현상 성장하는 것이 주된 목표예요. 선정 저도 궁극적으로는 연기력을 쌓기 위해 극단이 들어왔죠. 좀 더 멀리 잡는다면, 지금의 나인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극단이 성장하면, 지금보다 더 다양한 작품을 시도해 보고 싶어요.

마음정조학교 두근두근스튜디오 - 박부른 / 유정미

노원의 공부방 '마음정조학교'에서는 청소년 주민의 자임을 주제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기획해왔다. '두근두근 스튜디오'라는 사진전 활동도 그 중 하나다. 스튜디오의 박부른(이하 부른)씨와 유정미(이하 정미)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두근두근 스튜디오는 어떤 곳이에요?

부른 음, 시공간을 복시해서 예쁜 작품을 만들어내는 곳(웃음) 한 사람의 감정이나 진직하고 싶은 풍경. 그런 것들을 사진 한 장으로 표현해요. 마음 편하게 허주는 스튜디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사진도 전 값이 찍어드리고요.

스튜디오 활동은 어때요?

정미 다 지냈어요. 사진 찍는 것도, 시공간이랑 어울리는 것도요. 작년부터 활동해 받으면서 하는 직업도 있었어요. 사진전 열 때면, 한동안 못 보던 (스튜디오 활동하는)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요. 힘든 건 별로 없이 편한 일이라는 게 좋아요. 다른 일바 할 때보다 익숙한 환경에서 진행한다는 것도 좋고요.

부른 사실 학교 가기 싫을 때 빠지고 스튜디오 갈 때도 있어요.(웃음) 그 정도로 스튜디오 활동이 재미있어서 계속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하는 일은 너무 쉽고 편한 일이에요. 사진 찍고도 명상 같이 새로운 일도 해보고 싶어요.



▲ 노원 평생학습센터에서 두근두근스튜디오 사진전관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창조학교에 오는 청소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부른 의미나 멋있고 낭만적이에요. 팽파르도 있고.(웃음) 사실 그렇게 멋있지는 않아요. 생각하기 나름인데, 모두가이를 타는 사람들이 왜 될까요?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빡빡할 맛고 싶어서 붐의 이유가 있고, 하지만 또 왼쪽에선 쓴다질을 당해요. 부모들은 육하고 따리지를 읽나. 선생한테는 끌려가지를 읽나.

어른들이 하는 말 물어보면, '내가 접어서 아는데'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아요. 솔직히 짜증나요. 자기들은 이미 그 시절을 겪어봤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선택이나 행동을 제시하는 거요. 한국에서는 나이만 먹으면 그냥 장래인가봐요. 그런 정에서는 역시 같이 놀 수 있는 친구들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옆에서 열리고 하지도 않고, 스트레스 받지도 않고요.

정미 여주 힘들어 보이고 스트레스 받는다느 느낌어 강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럴듯 술 담배도 하고, 육하거나 과격한 행동도 해요. (부른이 얘기했던 대로)청소년이 이리고 단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는 것 같아요.

계속 노원에서 거주하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벗어나면 어떤 것 같아요?

정미 우선 성인이 된다면, '뭘 먹고 살지'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드네요. 어렸을, 어디서든 살려면 돈이 필요하니까요. 근데 또 시금이 오르면 할가도 같이 오르고, 참. 그래도 저를 활동하는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생기면, '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지' 하고요. 가예라 베웠던 것도 시금 당장 필요 예술 시간에 써먹고 있으니까요.

부른 청년이 되었을 때를 생각하면, 눈앞이 김잡하죠. 노원이 가장 살기 좋은 동네라고 하는데 어이일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그디지 살기 좋은 동네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냥 막막하죠.

노원에 사는 10대 주민의 수는 약 4만 5천 명이다.(2013년 기준)

"애들이 뭘 일마", "요즘 신 대들 참 무서워"라며 어른들은 청소년을 요상하게 일반화한다. 인터뷰를 마치고, 한 가지 의견이 들었다. 그 일반화되는 사람의 수만큼이나 청소년은 집에서, 학교에서, 노원구에서, 충분히 존중받고 있을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지만, 인터뷰를 하며 만난 주민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렇지 않은 현실이 드러난다. 말로만 '미래세대'라며 치켜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지금 현재의 삶과 활동을 존중받고자 하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 신원

Advertisement for 'Paper Airplane' project. Title: <종이비행기>를 계속 날릴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Content includes a list of sponsors, a photo of people working,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project.

작년 학생인권 실태조사, 노원지역 학교 측의 위법행위 수도 없어

노원의 학교에선 학생들의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을까? 또 학교의 환경은 어들에게 맞춰져 있을까? 2015년 5월-7월 동안 노원지역 청소년인권동아리 학우는 노원구 일대에서 약 11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인권 현황 및 학교환경 스티커 설문조사'이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학교에서의 핸드폰 규제, 두발 규제, 소지품 압수, 교실 난방 환경' 등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담고 있다.

이 기사는 이 발표 내용의 일부를 그래프로 옮겨놓았다. 이밖에도 야자를 포함한 강제학습, 제법 및 언어폭력 등에 대한 설문 조사도 진행되었다.

현행법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학교 측의 일방적인 '소지품 압수'나 '두발 규제', '핸드폰 규제'는 모두 위법이다. 하지만 아래 발표 내용을 보면, 노원지역 안에선 대다수 학생에게 이러한 위법행위기 자행되고 있다. - 신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2장 제4절 제13조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제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한다. 만일 학교규칙을 통해 이를 규제한다고 해도, 학생 전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2장 제4절 12조에 따르면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율령에 있어서 자신의 거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의 교사나 교장이 이를 규제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4절 제13조에 따르면 '학생은 소지품, 시계 관계 등 사생활적 자유/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교사를 비롯한 교직원도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압수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한 달 가까이 방학을 빼앗겨 왔다

여름방학이 지났다. 올해도 작년처럼 짧았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인시나 학업에 대한 부담은 늘어나고, 교육과정도 바뀌면서 배워야 할 내용이 더 많아졌다. 그에 비해 방학은 언제가부터 거의 빈 도둑 나 있다. 고3만 방학이 짧은 게 아니라, 학생이면 누구든 3-4주 정도도 짧은 방학을 보내야 한다.

2012년부터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으로 초중고교 할 것 없이 여름방학이 최대 10일 짧아지는 경우가 생겼다고 당시의 기사들을 쫓아다. 1년 동안 동교해야 하는 최소일수는 20% 일에서 190일도 줄었지만, 현 수에 한 과목당 공부해야 하는 시간¹⁾은 전혀 줄지 않아서 토요일에 쉬게 된 만큼 병행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자세히 말하면 토요일 수업이 사라졌지만 공부해야 하는 전체 시간을 그만큼 줄인 것은 아니어서, 토요일의 수업시간만큼 다른 날로 옮기는 것뿐인 것이다. 그래서 한 학기당 1-2주씩 수업일수가 늘어나고 병학이 줄어들었던 것이다. 최소수업일수 190일을 맞추는 학교는 거의 없다. 대부분 교과 미수의 압력 때문에 195일을 넘겨잡곤 한다. OECD 평균과 비교해보면 수업일수는 평균 25일이 많고, 주수는 1-2주 많다.

방학이 짧은 데에는 입도적인 교재량이 큰 원인이 있다. 특히 국어, 영어, 수학, 과학처럼 '주요 과목'이라 불리는 과목들의 비중과 비율 내용이 입도적으로 많다. 이는 해당 교과 교사들이 '학습량이 과다하다'라고 거의 10년이 넘게 지적하는 부분이다. 2015년에는 PISA(국제학생 평가프로그램) 2위 한국의 수 문항거리였던 '수학'과목의 교재양을 교육과정에서 20% 줄인 것을 목표로 했었다. 하지만 실상은 중3과 고등학교 인본계 학생은 10%나 내용이 늘고, 고등학교 자연계는 5% 줄어든 '시실상 의미 없는' 계정이 되어버렸다.

학교의 최종적인 병학일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하지만 한국의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참가가 매우 제한적이다. 그나마 참여할 수 있는 '학생회장'같은 대표 격인 사람도 제대로 된 발언권을 갖지 못한다. 결국, 병학일수 결정에 교사나 학교운영위원의 입김이 가장 강하고, 그들은 학생의 휴식보다는 교과 진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나갈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춘다.

*각주 1) 최소수업일수 2) 교과최소미수시간

[교사의 수업시간 및 근무시간 추이]

(단위: 주, 일, 시간(60분))

연도	구분	수업주수			수업일수			순 수업시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7	한국				204	204	204	755	746	480
	OECD평균				187	186	184	798	709	653
2008	한국	40	40	40	220	220	220	840	816	604
	OECD평균	38	38	37	187	186	184	786	703	661
2011	한국				220	220	220	812	821	609
	OECD평균				185	185	183	790	709	664
2013	한국	38	38	38	190	190	190	667	657	549
	OECD평균	38	37	37	183	182	181	772	694	643

*주 1) 수업주수와 수업일수는 교육법령과 제7차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산출됨
2) 순 수업시간은 교육과정제도에 기초하여 산출되며 정규수업, 특별활동, 자원활동 수업시간 포함.
3) 국제 비교를 위해 수업시간은 60분을 1시간으로 환산함.
초등학교의 순 수업시간은 위는 시간(10분)이 포함됨.

우리의 방학은 너무 짧다. 그런데 짧은 방학을 여름대로 잡기조차 못한다. 이 사회는 날도 날라온 토요일, 잘 노는 정의인지 욕성이린 슬로컨들을 내세우곤 한다. 하지만 실상은 토요일/공휴일에도 '정의처럼 프로그램'이라는. 밤식만 조금 다른 음부를 하도록 요구받는다. 병학도 미친거지다. '방학특강', '방학 스피드라 학습', '여름방학 대개강', 'OO 입시', '#학년 여름방학부터 시작하자'. 우리들의 생활을 둘러싸는 학원가의 광고들은 계속해서 무얼 비추고 있다. - 준

알아두면 좋은, 2016 청소년 인권소식 네 가지

1



국가인권위원회

“학교 측의 ‘과도한 휴대폰 규제’를 바꿔라”

국가인권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6월 23일, '학교 측이 휴대전화의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고 일률적으로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조치는 위법어 보장하는 일방적 행동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학교가 생활규정을 운영할 때도 지나친 제한조치를 기할 경우 인권 침해도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청소년인권행동 어수나르가 '학습시간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 청소년인권행동 어수나르

3

시민단체 “너무 긴 학습시간 줄여라!” 요구

청소년인권행동 어수나르(이하 '어수나르')는 5월 5일 어린이날 퍼레이드를 진행하며 '학습시간 줄이기'를 요구했다. '어수나르'는 이날 '학습시간 줄이기'를 요구하는 31,456명의 청소년/시민 서명을 국회의 교육부에 전달하며 '9시 등교, 3시 하교 및 6시간 학습시간 시행', '방학일수를 늘리고 수업일수의 수업시수를 줄여라', '보통, 야자, 락원 등 강제 학습을 법으로 금지' 등을 요구했다.



2

“겉옷 금지 규정 수정하라”

교육부 전국학교에 공문 보내



교육부

올해 2월 5일, 교육부가 “겉옷 착용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규정을 수정하라”고 전국역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학용정소니 한철기 등 개인건강이 영향을 받는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겉옷을 금지하는 등 학생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부분은 학생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하도록 권장했다.



4

청소년의 선거법 불복종 사건?

한국에선 청소년이 선거 때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헌 선거법에 위배된다. 그런데 4월 9일, 8명의 청소년들이 상회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자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며 고의도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보였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한국의 선거법이 청소년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막고 있다. 정치나 선거에 대해 우리의 생각을 꺼내는 순간 ‘불법’이 되는 지금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헌재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선거법을 기정하려는 시도 중이다. · 신원



청소년의 '선거법 불복종 선언'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출처 - 청소년인권행동 어수나르

교장에게 할 수 없는 것은 학생에게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아보면 내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몸 일가한 문제가 아이어마르, 일가으로서 몸무말이 못알다면 그것으로도 인권 침해입니다. 입장을 외동아보면 의미할해도 인권 침해는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은 어어일까요?

재보 방법

휴대폰으로 문자 보내기 010-2003-8564

페이스북으로 메시지 보내기 노원청소년인권신문 [돌이비행기]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nwon.paperplane



칼럼 및 에세이

학벌 콤플렉스

누군가는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라며,
하나도 부러워하지 말라고
위로해주었다.
하지만 부럽다.
비참하게도 부럽다.

성적이 낮은 나의 삶은 어떠한가. 나쁜 삶이다. 필요 없는 학생이며 불효자이고 시혜적이다. 공부를 못하면 인위적으로 사회급에 시달린다. 할 수 있는 건 죄로 얽히는 것뿐이다. 먹고, 자고, 쉬 쉬고, 씹는 것이 고지연 삶이다. 꿈에서도 갈 수 없고 상상 정도밖에 할 수 없다. 절망적이다. 일이 막혔다. 옆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도둑지가 멀쩡히 있을지 모르겠다. 쓰레기에게 삶이 있다면 이런 삶일까. 그저 싫어지고 있다.

성적이 나쁘면 별 해도 안 되는 인간이고 별 하면 안 되는 인간이다. 학교에서 어떤 대회가 열리면 성적순으로 신청자를 뽑는다. 공부를 못하면 자격이 없는 것이다. 학교에서 중요한 건 여학생들의 경험이지 아니라고 입상어니. 성적 좋은 애기상 다쳐 생활기록부에 인상 기록 한 줄이라도 더 적게 해주고 실은 마음일 것이다. 성적이 좋으면 자유학습실 시골도 우선이다. 공부 못하면 공부할 자격도 없다. 바보 같은 구도 속에서 공부 못하는 바보로 살긴 너무 화가 난다. 교무실이나 교장실에 가서 뺨뺨이라도 쳐야 하나 상상이 즐거운 이유는 현실이서 어부지 못하기 때문. 나는 모두 포기했다.

성적이 낮아 슬픈 이유는 좋은 대학에 못 가서일까.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사람 취급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선생의 나라답게도 시험 취급받지 못하는 무시도 선행되고 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은 학원에 전가세 나리 디린다.' 학원에서 또 별다른 게 없다. 학원도 시험을 쳐서 들어가야 하며,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 비디이 있는 것은 사소한 일이다.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공부 못하는 건 더 힘들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하지만 지식 자원은 성적순이다. 공부를 못하는 것만으로 불효자가 될 수 있다. 애 부모의 자신감의 깎이기 지식의 성적어 되어 이 하나. 지식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기 위해서이다. 주변 사람들의 찡긋 눈치 없는 질문들은 나에게 스스로 깨닫고 자기괴상을 끌어 주었다. 많은 사람이 나에게 요구했고 내 몫은 하나였고 내 능력은 한계가 있었다. 어유라고 일었다. 마치 데르리스의 넓은 공간이 한 줄밖에 남지 않은 순간을 계속 밀다트리는 것과 같다.

주변 사람들은 동시에 달콤한 말을 해주었다.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어떠한 근거도 없는 허무맹랑한 소리였다. 천하의 거짓말쟁이들이다. 쪽은 열 단어를 보지만 해도 의우던데, 난 명심해서 못 외우는 길까. 노력하면 성장의 기준이 아니었다. 백년 희복도 타고난 것만 못했다.

누군가는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라며, 하나도 부러워하지 말라고 위로해주었다. 하지만 부럽다. 비참하게도 부럽다. 계속 지기만 한다. 계속 지면서도 인정기는 이길 수 있다는, 어거이 한다는 희망과 부담감이 섞인다. 행성을 자존감 다 썩이고 살아왔는데 뭘가 남았으며 뭘 할 수 있나. 이쯤 되면 잘 살 자신이 사라진다. 영원한 승자는 없지만, 영원한 패자는 밤에 뭘 만큼 수주목하기때.

성적이 떨어지는 환경에서 벗어나고 해서 학벌주의 사회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OO대 다니고 있어요. 이상한 사람 아니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인사말로 들은 말이다. 학벌이 좋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인가. 그는 학벌이 자신의 매력까지 돋보이게 해줄 거란 선입견을 품고 있었다. 덕분에 나는 학벌 좋은 사람은 세수 없다는 편견이 생겼다.

학생 신분으로 피운 일이 공부 밖에 없는데 성적이 나쁜 것은 무의미할까. 불성실한 사람이고 손뼉만큼의 재능도 없는 사람이다. 노력 없고, 능력 있는 인간을 지를 회시는 없다. 19년 동안 공부 밖에 안 했는데 왜 공부를 못했까. 무슨 일을 해도 못하지 않을까. 공부도 못하는 이는 뭘 해도 안 될 것이다.

학벌에 연성이 없애어 애가 울려준다. 개인의 탓인가? 학벌을 따져대는 것은 세상인가. 개인인가. 성취 하나도 삶의 위치와 통경이 달라진다고 믿게 한 것은 학교이다. 학벌이 사람의 가치를 지는 척도가 될 것이라 험악한 것은 시되다. 지금은 계급이 없어진 세상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별로 위치를 만들어 냈다. 나쁜 세상이다. 괴로운 삶을 살기도 손발이 부어 히릴 없어 잠을 수뉘어 없는 나쁜 세상에 살고 있다.

흔들리는 학교, 학생 중심이 되어야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전도 5.8의 지진이 일어났다. 온 나라가 뒤흔들었다. 지진 때론만은 아니었다. 한국의 부실한 재난 방지 시스템이 다시 한 번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지진이 일어나는 동안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는 먹통이 된 상태였고, 재난 문자도 제대로 오지 않았다. TV에서도 지진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지 못했다. 방송으로 인내된 부산 대피소 중 몇 군데는 지진 대피소가 아니었다. 그나마도 켈만은 내진 설계(지진에 버틸 수 있는 설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다.

그중에서도 학교의 재난 방지 시스템은 독보적으로 목을 먹었다. 아래 사진은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학생들이 겪은 일이다.



그야말로 총지직 기관이다.

이런 상황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세월호에 있던 사람들 중 '가인하 있으라'라는 지시를 따랐던 학생을 역시 대부분 제때 빠져나오지 못해 사고를 당했다. 태인의 허명대 캠프에서는 교편이 시키는 대로 구명조끼를 벗고 바다로 떨어진 학생들이 파도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렇게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어른(교사, 교관, 지도사 등)이 학생을 위험으로 내모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극단적인 상황이 되어도 그저 책임자들이 욕먹고 피연될 뿐이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제대로 주목받지도, 해결되지도 않고 있다.

이런 지진 사태를 만들어낸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교사에게 너무 막대한 권위의 권한과 책임을 주고 학생을 휘어잡게 한 것이다. 사람은 모두 조금씩 부족하고, 조금씩 나쁘다. 모시려고 디를 리 없다. 교사는 안전 의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 애지 도망기는 학생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도 있고, 학생들은 뒷선일 수도 있다. 그런데 모시기 학생을 휘어잡고 인기 때문에, 학생들은 교사들의 잘못된 행동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학교 벽이 갈라져도 나가지 않음 공부나 학과는 교사에게 '꺼져 나 내 목숨이 더 중요하다' 하고 뛰쳐나갈 수 없는 것은 생명이 지 불행리한 일이다.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학생에게 권리를 주는 것이다. 교사에게 맡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학생을 실득하고 어하시켜야 한다. 학생이 돌이를 받아들 수 없는 지시는 지시의 지겨이 없어야 한다. 학생이 생각도 한 사람의 생각으로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때, 가장 안전할 수 있다. - 원부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공공기관



칼럼 및 에세이

「청소년을 위한 인권 에세이」를 읽고 쓴 인권 에세이

모든 사람은 같은 권리를 부여받고 청소년들 또한 그렇다. 청소년 인권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사람들이 인식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가진다. 이 가치를 지키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를 인권이라고 하며, 이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진다. 이 권리는 남에게 알보할 수 없고,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없다. 인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침해받지 않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다. 하지만 실이면서 인권을 침해받거나 무시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인권침해는 왜 일어나는 걸까?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해커니면서부터 인권을 침해받는 상황에 놓이다 보니, 그 상황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낀다.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 '인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노동자,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 등에 대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유독 청소년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하다. 청소년도 스스로 의식성을 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어른들은 식재, 성적으로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청소년의 권리를 무시한다. 모든 사람은 같은 권리를 부여받고 청소년들 또한 그렇다. 청소년 인권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사람들이 인식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두발깎이를 밀집되어 기르지 못하고 면색이나 피마 액세서리 착용을 금지당한다. 또한 담배와 시 세척복을 입지 못하고, 복도어 설치된 CCTV 등 많은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단체 생활에서 권리보장을 위해 인본어인 교칙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청소년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교칙으로 인한 것 이외에도 학교에서는 많은 인권침해가 벌어진다. 특별한 이유 없이 교3 교실에 1, 2학년들의 출입을 막는 것, 학교 임원 선거에서 같은 표기 나왔을 때 1학년보다 2학년을 우선 선출하는 것, 성직에 미리 급식 먹는 순서를 정하는 것 등 청소년들은 많은 권리를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다.

인권침해사례를 보면 정말 사람들이 권리를 더 누리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다. 인간의 가치는 동등하다. 한쪽은 최소한의 권리마저 빼앗기고 침해받으며 살아가지만 다른 한쪽은 빼앗은 권리만큼 더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사람의 가치는 같다. 누가 더 중요하지도 않고 못 마시도 않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인권을 지키고 존중해야 한다.



노원아, 놀자며? 운동하자며?

청소년 문화인들은 많은 장애물에 가로막혀 있다. 하지만 사회는 문제를 해결해주시는거녕 댜생각을 한다며 더욱 방해한다.

마을공동체 복원의 여섯 번째 걸음



▲ 노원구는 구민 1명당 한 가지 문화나 체육을 권장하는 '노원아 놀자! 운동하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 문화인들을 막는 장애물 중 하나는 시간이 없는 것이다. 학교의 학원이 실인적인 강제 학습, 혹은 학습 이후 피로 때문에 스포츠 여가를 즐길 시간이 없다.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잠시 땀을 내서 즐길 수 있는 여가는 저질뿐이다. 노원구는 학생들이 학교와 학원에 갇혀 있도록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시간이 있어도 스포츠를 즐길 시설이 없다. 그나마 있는 시설은 너무 멀리 있고,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과 스포츠전문대 대가 가능하다.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은 방과 후 활동, 부 활동 시간 이외에는 자율적으로 체육관조차 이용할 수 없다. 시간이 있다라도, 공간이 없는 것이다. 노원구가 학교에 체육시설을 일반 학생들에게도 제공하라고 장려하는 것이 다른 어떤 방제보다 효과적인 것이다.

학교로부터 시설을 빌린 스포츠클럽들은 꽤 많은 돈을 받고 스포츠를 가르친다. 스포츠는 혼자 연습하기 힘들고 진입 장벽이 높아 운동하고 싶으면 근본을 내고 꼭꼭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다. A 군은 농구가 하고 싶지만 부모의 반대가 심하다. 용부에 병행되고 비싸서 돈을 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주입에도 학원에 다니기 때문에 스포츠클럽에서 농구를 배울 수도 없다. 그런데도 농구가 정말 하고 싶은 A 군은 학원에서 늦게 귀가한 후 3km 떨어진 농구장에 가서 농구 연습을 한다. 하지만 실력이 잘 늘지 않고, 부족한 실력 탓에 그곳에서 농구를 하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다. 청소년은 운동조차 하기 힘든 노원구의 현실이다.

청소년 문화인들은 많은 장애물에 가로막혀 있다. 하지만 사회는 문제를 해결해주시는거녕 댜생각을 한다며 더욱 방해한다. 이 난관을 우리 청소년들만의 힘으로는 헤쳐나가기 힘들다. 크기는 국가, 좀 더 밀접하게는 노원구가 도약의 힘 문제이다. 노원구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청소년 문화인들의 스포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노원지역 청소년인권동아리 화아를 후원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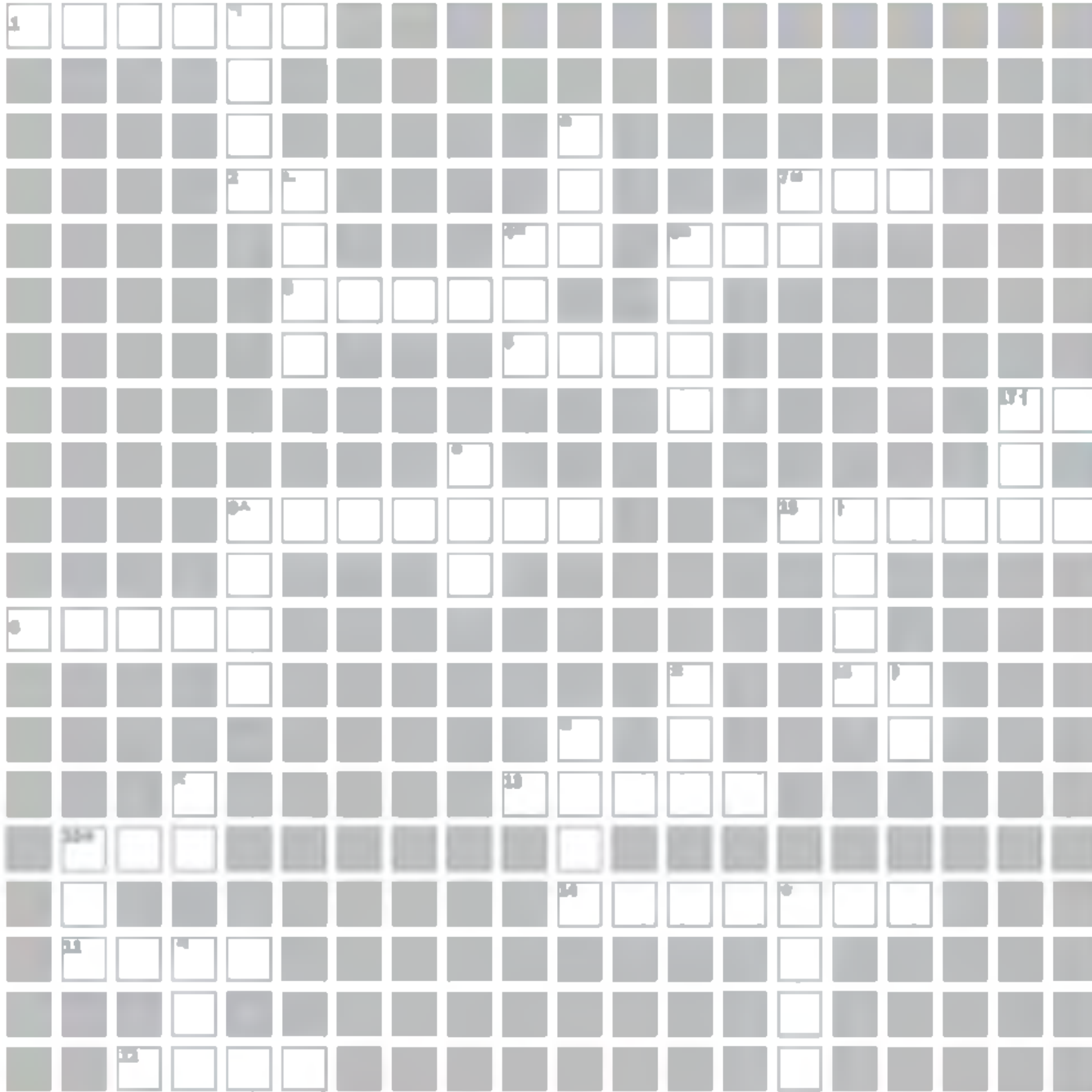
관현 권(田 田野) 꽃(花 花)채널. 있는 그대로의 청소년 존재가 존중받을 수 있는 노원구를 만드는 여정에 함께해주세요.

화아는 지난 2013년 만들어진 어레 (노원 청소년 인권신문 종이비행기 발행), (노원구 학생인권 실태조사), (노원 청소년노동 인권캠페인 주최), (청소년 인권 세미나 기획) 등 노원지역에서 청소년 주인의 권리 증진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화아는 앞으로 (노원 청소년 노동 - 안전 교육사업 기획), (노원구 고등학교 대학 실업조사 보고서 발표) (학생인권침해 민원 지원 및 아가어비 활동) 등을 이어나가기 합니다.

- 작은 금액이라도 많이 좋습니다. 정기 후원, 후원 문의 010. 6605. 1948 로 연락주세요. 일시 후원 [후려은행 1002-658-195013, 예금주_김민연] [카드사] [노원지역 청소년인권동아리 '화아']를 검색하세요.



가로세로 낱말퍼즐



가로퍼즐

1. 정규 수업 이후 학생이 자율적으로 학교에 남아 진행하는 학습
2. 어떤 대상이나 현상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
3. 학생의 학적을 기록한 문서
4.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사람.
5. 이탈리아의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피렌체와 부호 프란체스코 델 조콘도에게 무인 물자 사바타를 그린 초상화. 침묵한 여인의 신비스러운 미소로 유명하다.
6. 투표할 수 있는 권리.
7.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개인이나 집단을 만나 정보를 수집하고 여가를 나누는 일. 또는 그런 것. 주로 기자가 취재를 위하여 특정한 사람과 가지는 회견을 이른다.
8. 한반도 중영구에 있는 대한민국의 수도.
9. 노원구가 노원교육복지재단을 통해, 연 16세 이상 24세 이하 미취업 청년과 청소년 50명을 선발해 1인당 총 200만 원의 '00000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용이비행기 노원구에선 청소년에게 주며 주는 다양한 일들이 펼쳐져' 기사 참고]
10. 원래는 궁주군 노원면과 혜릉촌면에 속하였으나 1914년 노원면으로 통합되었고, 1963년 서울 시역 확장으로 성북구에 편입되었다. 1973년 성북구에서 도봉구로 분리되었으며, 1988년 도봉구에서 분리, 000개 신설되어 오늘에 이른다.
11. 다리를 정도로 인색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12. SNS의 일종이며, 대표 주커버스가 만들어졌고 파란색 이미지를 쓴다.
13. 어떤 상황이 중립하게 계속되는 것. '곤박롬'으로 순화.
14. 어떤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진행되는 조사와 방안 총 하나. [작년 학생인권 실태조사, 노원지역 학교 회의 위협행위 수도 없어' 기사 참고]
15. 유니세프로부터 인증 받기 위해 노원구에서 진행되는 사업. [용이비행기 노원구에선 청소년에게 주며 주는 다양한 일들이 펼쳐져' 기사 참고]
16. 신문이나 잡지 따위에서, 어떠한 사실을 알리는 것.
17. 귀를 기울여 들음.

세로퍼즐

1. 학벌을 중요하게 여기는 집안이나 대도. 또는 개인과 능력과 상관없이 어느 학교 출신이냐에 따라 차별을 받는 사회현상.
2. 물건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뜻의 한자성어.
3. 학생의 아버지나 어머니라는 뜻으로, 학생의 부모자를 이르는 말.
4.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사람.
5. 높은 내시 아래로 또는 밑속으로 몸을 던져 스스로 죽음.
6. 공간으로서 입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7. 특정에 들어가기 위해 지르는 시문.
8. 가지고 있는 물건.
9. 다섯 시공백 두 번으로 나뉘어, 상대편의 바스켓에 공을 던져 넣어 얻은 점수. 득점권을 겨루는 경기.
10.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11. 고양이의 하나. 원래 아프리카의 리비아사슴털을 길들인 것으로, 털과 송곳니가 특히 발달해서 육식을 주로 한다. 말들은 사육을 기 삼주거나 드러낼 수 있으며, 노른 어수분 곳에서도 살 수 있다. 야생동물도도 비육하여 여러 종들이 있다.
12.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하나. 화면 밖에서 벌어져 내리는 도형의 위치를 생기 하면서 빈틈이 없도록 채워 넣는 행위.
13. '어디어디'를 대립하거나 격식을 갖추어 이르는 말. 대개 4, 5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아이를 이른다.
14. 눈썹 하나도 아무런 무늬도 없음; 또, 눈썹과 필요성이 없음. (사자성어)
15. 나이가 같은 사람.
16. 물색을 있는 모양 그대로 그려 넣. 또는 그렇게 그려 넣 명상.
17. 경상남도과 경상북도를 아울러 이르는 말.

사람은 꿈을 꿀 때 가장 아름다운 손재가 된다. **성인이** 꿈을 꾸는 곳, **아름다운 성인이** 이루는 곳

단체모집 안내

[주요활동] 주1회 연가지도 및 발성, 움직임 등 특별수업
연1회 청소년 예술프로젝트 '우리 연극발매' 연2회 정기공연 및 단편 워크숍 등

[모집분야] 배우, 안출, 각본, 음향, 무대설치, 기획 등
[모집대상] 14~18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모집문의] 010-3917-2353

청소년 창작집단 **나인**

청소년 창작집단 '나인'은 예술을 즐기고 싶은 청소년들이 모여 함께 작품을 만들고, 무대에 올리는 소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을 찾고,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합니다.

2012년 11월, 청소년 예술프로젝트 1탄 '우리 연극발매'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7편의 곡을 창작하여 공연했으며, 2015년에는 <제4회 서울카톨릭청소년연극제>에서 장려상, 최우수연기상, 우수지도자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예술프로젝트 5탄

[일시] 2017년 1월 4(화)~3월 25일(일)
매주 수요일, 토요일 / 오후 2~5시 (총15회)

[활동내용] 연극놀이, 움직임 등 특별수업, 곡본작업, 연가지도 및 발성, 무대설치, 공연 등

[참가비] 7만원 (간식비, 공사비, 공연무대 등비에 포함됩니다.)
[참가문의] 010-3917-2353